

近代 東京語에 나타나는 「まい」에 관한 연구

嚴畢嬌*

(e-mail: kpu6948@gdsu.dongseo.ac.kr)

目次

- | | |
|---------------------|-------------------|
| 1. 서론 | 3.2 부정의지의 용법 |
| 1.1 연구목적 및 방법 | 3.3 확인요구의 용법 |
| 1.2 조사대상의 자료 및 범위 | 3.4 반문, 의문,질문의 용법 |
| 2. 「まい」의 접속형식 | 3.5 의뢰의 용법 |
| 2.1 「まい」에 上接하는 접속형식 | 3.6 조건의 용법 |
| 2.2 「まい」에 下接하는 접속형식 | 4. 결론 |
| 3. 「まい」의 용법 | 참고문헌 |
| 3.1 부정추량의 용법 | |
-

1. 서론

1.1 연구목적 및 방법

本稿는 문말표현 가운데서 조동사 「まい」의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이다. 필자는 이미 近世후기의 明治 東京語에 나타나는 「まい」의 의미용법에 관한 추이를 고찰한 바 있다¹⁾. 前稿를 통해 「まい」는 대화문에서 남녀 구별 없이

* 동서대학교 일본어학과 교수

1) 嚴畢嬌(2006), 「近世後期から明治期にいたる「まい」の発達について」『日語日文學』第32輯 pp.47~58 이하 前稿라 함.

매우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것이 地文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幕府말기 이후로 추정할 수 있지만 明治期 30년대의 작품인 『金色夜叉』에서는 여전히 대화문에서만 용례를 볼 수 있었다. 여기서는 明治 후기에서 大正, 昭和시대의 소설을 중심으로 「まい」가 어떻게 변화하여 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まい」의 대표적인 용법인 부정추량과 부정의지의 「ないだろう」나 「ないつもりだ」 등과의 관련성도 함께 조사하여 그 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볼 것이다.

1.2 조사대상의 자료 및 범위

조동사 「まい」가 어떠한 용법으로 사용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의 소설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 분석하였다. 本稿에서 사용한 언어 자료는 明治 30년(1898)대부터 昭和 22년(1947)대 까지 당대를 대표하는 소설들이다.

<표1. 작품 및 발표연대>

作家	作品	出版社	年度
国木田独歩 明治4~明治41(1871~1908)	武蔵野	新潮社	明治31(1898)
	忘れぬ人々	新潮社	明治31(1898)
	幻	新潮社	明治33(1900)
	郊外	新潮社	明治33(1900)
	小春	新潮社	明治33(1900)
夏目漱石 慶応3~大正5(1867~1916)	門	新潮社	明治43(1910)
武者小路実篤 明治18~昭和51(1885~1976)	友情	角川文庫	大正8(1919)
	愛と死	角川文庫	昭和14(1939)
太宰治 明治42~昭和23(1909~1919)	斜陽	新潮社	昭和22(1947)

2. 「まい」의 접속형식

2.1 「まい」에 上接하는 접속형식

조동사 「まい」의 규범적인 형식은 5단활용동사 및 「ます」에는 終止形에, 그 이외의 활용동사에는 未然形에 접속하지만 현대 일본어에서는 5단활용 이

외의 동사가 終止形에 접속하는 용법도 흔히 볼 수 있다. 그리고 「する」에는 未然形에 접속한 「せまい」「しまい」 외에 문어활용의 終止形에 붙는 「すまい」도 있지만 「せまい」형식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来る」동사는 未然形에 붙는 「こまい」와 連用形에 붙는 「きまい」가 있지만 「こまい」형은 현대어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來るまい」가 가장 일반화되어 있다.²⁾

본 자료에서는 1단활용동사가 終止形에 접속한 형식은 한 번도 보이지 않고 모두 未然形에 접속한 형식으로만 사용되었으며 「する」동사는 「しまい」형과 「すまい」형이 각각 세 번과 한 번씩 나타났다. 「来る」동사는 루비가 붙어있지 않은 「來まい」형이 한 번 보였다. 현대 일본어에서 1단활용동사가 終止形과 未然形에 각각 접속하는 용법과는 달리, 적어도 昭和시대까지는 규범적인 접속형태가 그대로 지켜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する」動詞의 규범적인 접속형식인 「せまい」형은 보이지 않고 「しまい」형과 「すまい」형이 각각 세 번과 한 번씩 나타났다. 「する」동사는 일찍이 江戸말기 작품에서부터 「しまい」형이 보였으며 「すまい」형은 明治期の 소설에서 사용례가 보이지만 이외에도 「せまい」형이 『金色夜叉』에서 한번 보였다.

<표2. 「まい」의 上接形>

「まい」의 上接形		武蔵野外4 作品	門	友情	愛と死	斜陽
5段活用動詞終止形		7	12	2	5	5
1段活用	未然形	2	2	6	0	3
	終止形	0	0	0	0	0
する	す	0	0	0	0	1
	し	0	3	0	0	0
来る	來	1	0	0	0	0
丁寧語「ます」		0	3	1	0	0
계		10	20	9	5	9

- (1)まさかに行暮れて困る事もあるまい。(武.21.1.地文)
- (2)当分宅へ置く位の事は、好意上為てくれまいものでもない。(門.54.4.地文)
- (3)ゆうべの事は、ゆうべの事。もうよくよすまい、と思って、(斜陽.34.14.かず子の 独白)
- (4)この屏風に関する一切の事を自白しようか、しまいかと思案したが(門.103.17.地文)
- (5)「しかし都は各種の人が流れ流れて集まって来る底のない大沼である、彼人だってどん

2) 松村明編(1976), 『古典語現代語助詞・助動詞詳説』学灯社.奥村三雄執筆 p.238~242
 _____(1977) 『近代の國語—江戸から現代へ』桜楓社 p.153~154
 田中章夫(2001), 『近代日本語の文法と表現』, 明治書院 p.354~355

な具合で此処へ漂って来まいものでもない」など思いつづけて坂の上まで来て下町の方を見下ろすと、(後略)(幻.149.16.独白)

(6)「どうもこう弛みますと、到底元の様に繋る訳には参りますまいと思いますが。」と云った。(門.60.13.齒医者→宗助)

(7)又どうともなるんでしょさ。小六一人位そりや訳はありますまいよ。(門.45.6.叔母→宗助)

용례(1)은 5단활용동사의 중지형에, 용례(2)는 1단활용동사의 미연형, 그리고 (3)(4)는 사변격활용동사「する」가 각각「すまい」와「しまい」형으로 접속한 예이다. 또 용례(6),(7)과 같이 丁寧語「ます」에 下接한 예문도 『門』과 『友情』에서 성별에 관계없이 나타났지만 昭和期の 작품에서는 사용례가 보이지 않는다. 前稿에서 丁寧語에 下接하는 형식은 특히 『會話篇』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이는 당시 일본어의 표준어를 반영한 규범적인 입문서로 규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 볼 때 적어도 幕府말기까지는 「まい」의 규범적인 문체는 口頭語였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³⁾ 이번 조사에서는 용례수가 많지 않아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大正, 昭和시대를 경계로 하여 口頭語에서 文章語로 바뀌어 간 것으로 생각된다.

2.2 「まい」에 下接하는 접속형식

「まい」에 下接하는 語는 <표3>과 같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전 작품을 통해 終止形에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이어 「かと」「と」와 같은 인용문으로, 그리고 연체형 용법이나 종조사 등과 함께 사용한 예문들을 볼 수 있었다. 연체형 용법은 현대어에서는 지극히 제한된 형태인 「あろうことかあるまいことか」와 같이 「ことか」에 접속하는 형식이 유일한 용법으로 남아있지만⁴⁾ 이번 자료에서는 「まいものでもない」「まい位に」의 형태로 明治期の 작품에서 각각 두 번씩 나타났을 뿐, 大正期 이후의 작품에서는 사용례가 보이지 않는다. 대화문에서 종조사「ね」나 「よ」를 붙인 「まいね」「まいよ」형식도 보이지만 昭和期の 소설에서 이러한 형식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江戸시대부터 幕府말기 까지 대화문에서 활발하게 사용되던 「まい」가 大正期和 昭和期를 경

3) 『會話篇』은 당시 외국인의 일본어 습득을 위해 만들어진 입문서로서, 저자인 E·Satou는 江戸시대의 교양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던 말들을 수록하였을 것이며 따라서 규범적인 언어자료들로서 규범성이 강한 교과서와 같은 성격을 띠고 있다.

4) 松村 明編(1971), 『日本文法大辞典』明治書院 p.775

계로 하여 차츰 소멸되어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표3. 「まい」의 下接形>

「まい」의 下接形	武蔵野·外	門	友情	愛と死	斜陽
終止形	4	4	5	2	4
連体用法	0	3	0	0	0
が	2	0	0	0	0
か	1	0	1	0	1
かと	2	6	0	0	1
と	0	4	1	3	2
し	0	0	0	0	1
ね	0	0	1	0	0
よ	0	2	0	0	0
~か~まいか	0	0	1	0	0
~ものでもない	1	1	0	0	0
계	10	20	9	5	9

- (8) 「まあ仕方がない。安さんが神戸から帰るまで待つより外に道はあるまい。」(門.28.11.宗助→お米)
- (9) 「しかし都は各種の人が流れ流れて集まって来る底のない大沼である、彼人だってどんな具合で此処へ漂って来まいものでもない」など思いつづけて坂の上まで来て下町の方を見下ろすと、(後略)(幻.149.16.独白)
- (10)何時かみっちり異見でもしなければなるまい位に考えていたが、(門.120.12.地文)
- (11)行ける所まで行きたいが、何か好い工夫はあるまいかと相談を掛けるので、安之助はよく宗さんにも話してみようと答えると、(後略)(門.52.13.地文)
- (12)「知らないわ。直さんの番人じゃあるまいし。」(斜陽.137.18.かず子→おかみさん)
- (13)私を彼女に逢わし、かくまでも深く恋させて下さった神よ、彼女を私から奪いはなさりますまいね。それはあまりに残酷です。(友情.38.12.野島の日記文)
- (14)「又どうともなるんでしょうさ。小六一人位そりや訳はありますまいよ。」(門.45.6.叔母→宗助)
- (15)私はこの手紙を出そうか、出すまいか、考えた。(友情.105.7.慣用句)

3. 「まい」의 용법

조동사 「まい」의 어원과 생성과정, 용법에 대한 선행연구로 出雲朝子(1987), 阪倉篤義(1993), 山口堯二(2001) 등이 있다.⁵⁾

각 작품 속에 나타난 「まい」의 용법별 사용수를 조사, 분류한 것이 <표4>이다.

<표4. 「まい」의 작품·용법별 사용수>

「まい」의 용법 ⁶⁾	武蔵野 外	門	友情	愛と死	斜陽
부정추량	7	10	5	2	2
부정의지, 결심	1	2	2	1	3
반문, 의문, 질문	1	5	0	0	2
의뢰	0	0	1	0	0
조건	0	0	0	0	1
그 외	1	3	1	2	1
계	10	20	9	5	9

3.1 부정추량의 용법

부정추량의 용법의 「まい」는 明治期와 大正期, 그리고 昭和期에 걸쳐 두루 나타나고 있지만 昭和期の 자료에는 대화문에서 사용된 용례는 보이지 않고 地文에서도 조금씩 감소해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前稿에서 江戸 후기부터 明治 30년대의 작품 속에 나타나는 부정추량의 「まい」가 대화문에서, 그리고 화자가 여성일 경우에도 빈번하게 나타났는데 비해 본 자료에서는 역의 현상이 나타났다.

<표5. 否定推量の 형식과 작품별 사용 수>

否定推量	武蔵野·外		門		友情		愛と死		斜陽	
	대화	지문	대화	지문	대화	지문	대화	지문	대화	지문
まい	2	5	5	5	2	3	0	0	0	2
ない(の)だろう	6	2	1	4	8	0	1	0	5	1
なかろう	1	0	1	1	0	0	2	0	0	0
ないらしい ⁷⁾	0	1	0	0	1	0	0	0	0	0

5) 出雲朝子(1987), 「キリシタン物の文法」 『国文法講座-時代と文法-近代語』 明治書院
 阪倉篤義(1993), 『日本語表現の流れ岩波セミナーブックス』 岩波書店
 山口堯二(2001), 「「まい」の通時的变化」 仏教大学文学部論集85

6) 「まい」용법에 대한 판정이 본문 속의 정보만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독해 과정에서 필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것임을 밝혀둔다.

7) 「らしい」를 추정의 용법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지만 본 자료의 용례가 추량과 추정용법의 경계가 애매하여 본고에서는 추량용법에 포함시켰다.

- (16)ともかく、画や歌でばかり想像している武蔵野をその俯ばかりでも見たいものとは自分ばかりの願ではあるまい。(武.7.10.地文)
- (17)今のところでは、まだそれ程でも御座いますまいから、ただ御痛みだけを留めて置きましょう。(門.61.2.齒医者→宗助)
- (18)さもなければあまりにも残酷だ。彼女は自分をまだ愛してはまい、だが嫌ってはいない。(友情.33.16.地文.独白)

「まい」와 함께 부정추량의 용법으로 사용된 형식은 「ないだろう」「ないのだろう」「ないでしょう」「なかろう」「たろう」「ないらしい」등이다.

「ないだろう」와 조사「の」를 삽입한「ないのだろう」형식이 점차「まい」를 능가하기 시작하며 특히 대화문에서는 大正期를 경계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대화문에서「ないだろう」형식은 모두 남성에게만 편중해서 나타났다.

용례(19)~(23)은 모두 부정추량의 용법으로 사용된 용례들이며 대화문에서 화자가 여성인 경우, 사용례가 보이지 않았다.

- (19)松か何かであつたら極めて平凡な変化に乏しい色彩一様なものとなってきまで珍重するに足りないだろうと。(武.13.5.地文)
- (20)「しかしその女でなければとは言えないだろう。男と女はそう融通のきかないものではないよ。」(友情.24.11.仲田→野島)
- (21)彼は今夜此所で安井に落ち合う様な万一はまず起らないだろうと度胸を据えた。(門.211.11.地文)
- (22)お母様も生きては、いらっやらないだろうし、また亡くなったお父上のお名前をけがしてしまう事にもなる。(斜陽.38.3.地文)
- (23)秋山の声は大津の耳に入らないらしい。(忘れぬ人々.136.5.地文)

3.2 부정의지의 용법

<표6. 否定意志의 형식과 작품별 사용 수>

否定意志	武蔵野 外		門		友情		愛と死		斜陽	
	독백	지문	대화	독백	독백	지문	독백	지문	대화	지문
まい	1	0	1	1	1	1	1	1	1	4
ないつもりだ	0	0	1	0	0	0	0	0	2	0
するのはよそう	0	0	0	0	0	0	1	0	0	0

화자, 혹은 제 3자의 부정의 의지를 나타내는 「まい」는 현대일본어에서는

고 연령층이나 격식을 갖춘 말씨에서 보이는 경우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ないようにしよう」「ないつもりだ」「するのはよそう」와 같은 형식을 사용한다. 이러한 형식은 明治 40년대의 『門』과 昭和期の 『愛と死』 그리고 『斜陽』에서 처음으로 예문 (27), (28)의 「ないつもりだ」「なかったつもり」 그리고 예문(29)의 「するのはよそう」 형식이 보이기 시작한다. 용례 수는 불과 세 번밖에 보이지 않았지만 明治 후기부터 대화문에서 서서히 「まい」와의 교체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まい」가 부정의 의지 용법으로 사용될 경우, 大正期和 昭和期の 작품에서는 모두 화자의 <독백>에서만 나타났으며 대화문에서는 사용례가 보이지 않았다.

(24)しかし一たん見まいと決心したからには意地が出て振向くのが恥ずかしくて、又た振る向くと向わないのとで僕的美術家たり得るや否やの分れ目のような気がして来た。(郊外 41.10.江藤의 独白)

(25)あまりにひどすぎる自分は思い出すまいとすればするほど、思い出された。(愛と死.206.13.地文)

(26)ゆうべの事は、ゆうべの事。もうよくすまい、と思って、(後略)(斜陽.34.14.かず子の 独白)

(27)ええ。然し寒い位どうでも構わない積ですが」(門.25.4.お米→小六)

(28)「あなたが、山本さまのお家から出て、西片町のお家へ帰って来た時、お母さまは何もあなたをとがめるような事は言わなかったつもりだけど、でも、たった一ことだけ、(お母さまはあなたに裏切られました) って言ったわね。(52.18.母親→かず子)

(29)自分の心はあまりにも淋しかった、しかし泣くのはよそうと思った。(愛と死.210.5.独白)

3.3 확인요구의 용법

<확인요구>의 용법은 <추량>에서 파생한 용법이며 현대 일본어의 특징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추량>이라는 본래의 의미에서 벗어나, 화자 자신은 확신에 차 있지만 청자의 감각이나 감정, 그리고 판단을 화자가 직접 인식할 수 없는 경우, 청자로부터의 승인을 유도해 내기 위한 경우에 사용한다. 즉, 본인은 어떤 근거에 의하여 그럴 것이라고 판단하지만 그 판단을 상대방이 내리도록, 혹은 상대방의 판단을 받아들여려는 여지를 두는 표현방식이다⁸⁾. 현대 일본어에서는 일반적으로 「ないだろう」「ないのだろう」「ないでしょう」등으로 표현한다.

조동사 「まい」에 상대방의 동의나 확인을 요구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8) 嚴畢嬌(2002), 「近世後期江戸語助動詞「う・よう」「だろう」」 『東西論文集』 p.143~153

종조사 「ね」를 붙인 「まいね」의 형태로 확인요구의 용법으로 쓰인 용례가 大正期 의 소설 『友情』에서 한번 나타났다. 예문(30)은 주인공인 <野島>가 사랑하는 여성을 빼앗아 가지 말아달라며 神에게 부탁하며 확인을 요구하는 장면에서 한번 나타났으며 이러한 용법이 昭和期의 작품에서는 모두 「ないだろう」「ねえんだろう」「ないのだろう」「ないでしょう」「ないみたいでしょう」등, 다양한 형식으로 쓰이고 있음을 <표7>에서 알 수 있다.

<표7. 確認要求의 형식과 작품별 사용 수>

確認要求	友情		愛と死		斜陽	
	대화	지문	대화	지문	대화	지문
まい	1	0	0	0	0	0
ない (ねえん) だろう	0	0	0	0	1	0
ないのだろう	0	0	1	0	0	0
ないでしょう(ね)	0	0	0	0	1	1
ないでしょうか	0	0	0	0	0	1
ないみたいでしょう	0	0	0	0	1	0

- (30)私を彼女に逢わし、かくまでも深く恋させてくださった神よ、彼女を私から奪いはなさりませまいね。それはあまりに残酷です。(友情.38.12.日記文)
- (31)「体を大事にして頂戴ね。私は恥かしいほど丈夫なのよ。兄によくお前は病氣しても気がつかないのだろう。気がつく時分にはなあって、いるのだろう、と言われますわ。」
- (32)「ちっとも他の動物と本質的な違いが無いみたいでしょう?」 (斜陽.53.17.かず子→母親)
- (33)「ところがね、お母さま、たった一つあったの。おわかりにならないでしょう。」 (斜陽.53.18.かず子→母親))
- (34)けれどもそれは人間の生活のほんの一パーセントを占めているだけの感情で、あとの九十九ぱ一せんとは、ただ待って暮している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
(斜陽.97.12.かずこの手紙)

3.4 반문, 의문, 질문의 용법

이 용법은 형식적으로는 종조사 「か」나 의문사 「何」 등과 같은 의문요소와 함께 사용한다. 먼저 「반문」은 의문 표현의 형식을 취하여 긍정, 혹은 부정의 사태를 역으로 바꾸는 표현수단을 사용하여 문의 내용과는 반대의 사태를

상대방에게 강하게 주장하는 용법을 말하는데 예문(35)가 이 용법에 해당한다. 「의문」은 어떤 정보에 대해 화자가 전혀 짐작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것을 나타내는 용법으로 예문(36), (37), (38)이 여기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말하는 질문용법이란, 예문 (39), (40)와 같이 완곡함을 동반한, 정중한 질문표현으로 생각할 수 있다.

<표8. 반문, 의문, 질문의 형식과 작품별 사용 수>

반문, 의문, 질문	武藏野·外		門		友情		愛と死		斜陽	
	대화	지문	대화	지문	대화	지문	대화	지문	대화	지문
まい	1	1	1	3	0	0	0	0	1	0
ない(の)だろう	0	0	0	1	1	0	0	0	0	0
なかったろう	0	0	0	0	1	0	0	0	0	0
なかろうか	0	0	1	7	0	0	0	0	0	7
ならないでしょう	0	0	0	0	0	0	0	0	1	0

(35)日の西に傾くと共に一面の火花を放つというも特異の美観ではあるまいか。

(武.15.9.地文)

(36)いっそ思い切って、本職の不良になってしまったらどうだろう。そうになると、弟もかえって楽になるのではあるまいか。(斜陽.79.3.かず子の 独白)

(37)もしこの冒険に成功すれば、今の不安な不正な弱々しい時運を救う子とが出来はしまいかと、はかない望を抱いたのである。(門.191.1.地文)

(38)人間はなぜまたその淋しさを耐えなければならぬのだろう。

(友情.114.18.野島の 独白)

(39)行ける所まで行きたいが、何か好い工夫はあるまいかと相談を掛けるので、安之助はよく宗さんにも話してみようと答えると、(後略)(門.52.13.地文)

(40)「ところがね、お母さま、たった一つあったの。おわかりにならないでしょう。」

(友情.24.14.仲田→野島)

3.5 의뢰의 용법

의뢰와 부탁을 나타내는 용법으로 本稿에서는 「もらえまいか」의 용법으로 쓰인 예문이 『門』에서 남성이 사용한 예문을 하나 찾을 수 있었다. 口頭語에서는 주로 「～てくれ」「もらえないだろうか」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이러한 형식은 보이지 않았다.

(41)好い加減な頃を見計って宗助は、先達て話のあった屏風を一寸見せて貰えまいかと、主人に申し出た。(門.101.17.地文)

3.6 금지의 용법

「まい」에 종조사 「ぞ」를 붙여 금지의 용법으로 사용⁹⁾하는 경우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まいぞ」의 형태는 보이지 않고 문맥상에서 금지의 용법으로 사용한 용례를 볼 수 있었다. 前稿에서 幕府말기의 『牡丹灯籠』에서 「まいぞ」의 사용례가 한 번 있었지만 이후의 작품에서는 보이지 않고 예문 (42), (43)와 같이 의미상에서 금지의 용법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현대 일본어 문법서에서는 「まいぞ」형식에 대해 거의 대부분 언급되어 있지 않는 것을 볼 때 幕府말기를 경계로 이 형식이 자취를 감추기 시작한 것으로 생각된다.

(42) 「知っているなら、郵便函にそう何度もゆく必要はあるまい。船はだんだん遠くなるのだよ。」(愛と死.183.6.兄→妹)

(43) お礼はあまり出来ないかと友達は言ったが、お礼はいるまいと言った。
(愛と死.141.1.地文)

3.7 조건의 용법

「まい」에 병렬조사 「し」를 붙인 「まいし」는 판단이 성립하는 조건을 나타내며 상대를 나무라거나 알보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斜陽』에서 주인공 <かず子>가 이러한 조건을 나타내는 용법으로 <まいし>와 <ないだろうし>를 각각 한번 씩 사용한 용례가 보인다.

(44) 「知らないわ。直さんの番人じゃあるまいし。」(斜陽.137.18.かず子→おかみさん)

(45) お母さまも生きては、いらっしやらないだろうし、また亡くなったお父上のお名前をけがしてしまう事にもなる。(斜陽38.3.かず子の 独白)

4. 결론

본 연구는 近世후기에서 明治 東京語에 나타나는 「まい」의 의미 용법에 관한 추이를 고찰한 拙稿에 이어 明治 후기에서 昭和期에 나타나는 「まい」가 그 후에 어떻게 변화해 가는 지를 「ないだろう」「ないつもりだ」등과의

9) 湯澤幸吉郎(1970) 『徳川時代言語の研究』 風1間4書房 p.410

관련성도 함께 조사하여 살펴보았다. 각 작품에 나오는 용례를 그대로 <사용 상태>로 일반화하기에는 제한된 분석 자료 및 용례 수 등의 이유로 무리가 있겠지만 前稿와 本稿의 연구결과를 통해 대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먼저, 室町시대와 近世시대의 규범적인 접속형식인 1단활용동사의 未然形 접속형이 昭和期까지는 굳건하게 지켜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으며 현대 일본어에서 終止形 접속형을 허용하는 시기는 좀 더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 봐야 할 것이다. 다만, 「サ변격활용동사」인 「する」의 규범적인 접속형인 「せまい」가 일찍이 江戸시대부터 「するまい」「しまい」등의 형태로도 나타나는데, 이 「する」동사를 시작으로 「来る」동사도 복잡한 접속형을 허용하면서 혼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江戸말기와 幕府말기의 작품 속에 나타난 「まい」는 일상적인 대화문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났지만 本稿에서는 地文에서 다수의 용례들이 보였으며 대화문에서 사용한 용례도 보이긴 하나 대부분 간접화법이거나 독백, 혹은 일기문에서 나타났다. 특히 종조사 「ね」나 「よ」, 그리고 丁寧語 「ます」에 접속하는 형식은 昭和期の 작품에서는 사용례가 보이지 않은 점 등으로 미루어 생각 해 볼 때 대화문으로 쓰이던 「まい」사용을, 여성 쪽에서 먼저 사용하기를 기피하면서 서서히 쇠퇴해 가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그 이유로, 中世와 近世시대에 「まじい」「まい」가 공존하면서 그 역할을 달리 하였는데 「まい」는 대우적인 고려가 많지 않은 직선적인 표현의 어투인데 비해 「まじい」는 보다 조심스럽고 정중하며 신중함이 내포된 어투로 사용되었다고 한다면 근세 봉건주의 사회에서 여성들에게 정중하고 품격 있는 말을 요구하는 일본의 신분사회에서 적어도 중상류층의 여성들은 「まい」사용을 자의에서든 혹은 타의에서든 기피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점차 신분이 낮은 하류계층으로 확산되어 여성들 사이에서 사용하기를 주저했을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현대일본어에서는 부정의 의지 용법으로 「ないようにしよう」「ないつもりだ」「するのはよそう」와 같은 형식을 사용하는데 本稿에서 처음으로 이러한 형식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대개 大正期 무렵에서 昭和期를 경계로 급속하게 증가하는 반면에 당연한 말이지만 「まい」는 대화문에서나 地文에서 사용률이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参考文献】

- 嚴畢嬌(2002), 「近世後期江戸語에 나타나는 助動詞 「う・よう」「だろう」에 對하여,
『東西論文集』 p.143~153
- 嚴畢嬌(2006), 「近世後期から明治期にいたる「まい」の發達について」 『日語日文學』 第32
- 出雲朝子(1987), 「キリシタン物の文法」 『国文法講座-時代と文法-近代語』 明治書院
- 倉持保男(1980), 「推量・推定・推測などを表す言い方」 『文法Ⅱ助動詞を中心にして』
国際交流 基金 p.122.
- グループジャマシ編著(1998) 『日本語文型辞典』 くろしお出版 p.533-535
- 阪倉篤義(1993), 『日本語表現の流れ岩波セミナーブックス』, 岩波書店
- 田中章夫(2001), 『近代日本語の文法と表現』, 明治書院 p.354~355
- 田中稔子(1993), 『田中稔子の日本語の文法-教師の疑問に答えます-』, 近代文藝社
- 中村通夫(1948), 『東京語の性格』 川田書房
- 松村明編(1971), 『日本文法大辞典』 明治書院 p.775
- _____ (1976), 『古典語現代語助詞・助動詞詳説』, 学灯社 奥村三雄執筆
p.238~242
- _____, (1977), 『近代の国語—江戸から現代へ』 桜楓社 p.153~154
- 山口堯二 (2001), 「「まい」の通時的变化」 仏教大学文学部論集85
- 山口明穂・秋本守英編(2001), 『日本語文法大辞典』 p.728
- 湯沢幸吉郎(1982), 『徳川時代言語の研究』, 風間書房 p.410

要 旨

本稿は、文末表現のうち、助動詞「まい」の推移に関する研究である。すでに近世後期から明治東京語に至る「まい」の発達について述べた拙稿に続いて、明治後期から昭和期におけるそれについてたどってみた。各作品の用例をそのまま使用の実態と一般化するには、極めて制限されている分析資料および用例数などの理由からある程度問題に残るが、前稿と本稿の研究結果から次のことが言えよう。助動詞「まい」は口語文典では、普通五段活用および「ます」の終止形、五段以外の動詞の未然形につくのを原則としているが、現代語の実態はやや複雑である。本稿の資料における一段動詞はすべて未然形についており、少なくとも昭和 20 年代までは原則が守られていたようであり、現代語における一段動詞の終止形につく接続はもう少し時間を待たなければならないようである。

中世・近世における「まい」の主な用法は、＜打消の推量・打消の意志・禁止・当然・適当でない意＞などと説明されているが、江戸末期から幕末期・明治 30 年代までの「まい」の主な用法は、打消の推量・打消の意志・確認要求・禁止・問い・疑い、その他、慣用語句的に使われる「と～まいと」などであった。前代と比べ、江戸末期から明治期になると「まい」の用法が少し広まっているようである。本稿における「まい」の用法も主に打消の推量・打消の意志・確認要求・反問・自問・質問・依頼・禁止・条件などの用法が見られ、前稿と比較して用法の面からはさほど差が認められないようである。ただし、明治後期から「まい」のほとんどの用法が徐々に衰退する傾向が見られており、「まい」の代わりに、たとえば＜打消の推量＞は「ないだろう」、＜打消の意志＞は「ないつもりだ」「するのはよそう」形を、また＜依頼の用法＞の「くれまいか」を＜貰えないだろうか＞などと用いられている用例が大正期・昭和期頃を境に急速に増加しているようである。中世・近世時代に主な用法であった禁止の用法である「まいぞ」形や、当然・適当でない意を表す用法は今回の資料では使用例が見つからなかった。本稿では用例数の少ないため、会話文で男女の使い分けは認められず、会話文から徐々に姿を隠し、肩身が狭くなり、やがて地の文でも使用率が減少していく傾向が見られた。

キーワード：まい， う・だろう， 小説， 東京語， 口頭語， 文章語

투 고 일 : 2015. 2. 28
심 사 일 : 2015. 3. 14
게 제 확 정 일 : 2015. 4. 4